

위기의 브라질, 근본적 원인과 향후 전망

오성주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supremo9@posri.re.kr)

목차

1. 브라질 경제 펀더멘털 점검
2. 호세프 탄핵 배경과 의미
3. 룰라와 호세프 리더십 비교 분석
4. 향후 정계 개편과 정책 변화 전망
5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브라질 경제는 최근 3년간 GDP 성장률이 추락하고, 민간 소비와 투자 모두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 동력을 빠르게 상실 중
 - '14년, '15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0.1%, △3.8%로써 2000년대 이후 최악의 실적이며, 금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
 -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, 정부 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도 증가세
 - 한편, 경제 위기로 시작된 사회 불만이 호세프 탄핵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정치·사회 갈등에 이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적 위기로 부각
- 호세프 탄핵의 법적 근거는 정부의 회계 조작 혐의이며, 과거 연립 여당이었던 PMDB 주도의 총공세로 현재 대통령 직무는 정지 상태
 - PMDB측은 호세프 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국영 은행을 통해 20조원을 대출받아 실업보험, 저가주택 공급 등의 정책 추진에 사용한 혐의를 제기
 - 그러나 실제로는 호세프 대통령이 페트로브라스 비리를 수사하면서 정치인들의 사정 범위가 PMDB 등 연립 여당 전체로 확대된 것이 결정적 요인
 - 이번 사태는 지난 15년간 중남미를 지배했던 좌파 물결의 뚜렷한 퇴조 현상을 의미하며, 탄핵 성공 시, 다른 좌파 정권도 유사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
- 룰라 전 대통령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집권에 성공한 반면, 호세프는 원칙주의를 고수. 이후 경제 부진으로 기득권과 서민층 모두에게 불만이 쌓이고 제1여당인 PMDB가 연정을 탈퇴함으로써 위기 자초
 - 호세프는 1기 정부에서는 룰라의 후광 및 집권당의 강한 입지로 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으나, 2기 정부가 국민들의 낮은 지지율로 출범하면서 분열
 - 이번 탄핵 사건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스킴에 의존하는 브라질 연정의 한계가 드러났으며, 국민들에게 부패의 주범으로 각인된 만큼 향후 국정 수행이 어려울 전망
- 향후 예상되는 브라질 정국 시나리오는 3개로 압축 가능
 - 시나리오 1) 탄핵 통과 및 테메르 정부 출범 이후, 위기 상황 점진적 해소
 - 시나리오 2) 탄핵 통과 및 테메르 정부 출범하나, 브라질 위기는 지속
 - 시나리오 3) 탄핵 실패 및 호세프 대통령 직무 복귀 후, 조기 대선 추진
- 탄핵안 최종 투표가 예정된 8월 말까지는 정국 주도권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라질 정치 및 사회 혼란 지속 우려
 - 브라질은 리우 올림픽에 사상 최대 예산을 집행한 반면, 흥행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정권 교체 시에도 브라질 경제에 대한 낙관은 금물
 - 브라질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우리 기업들은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, '신(新)정부'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운영 전략 재점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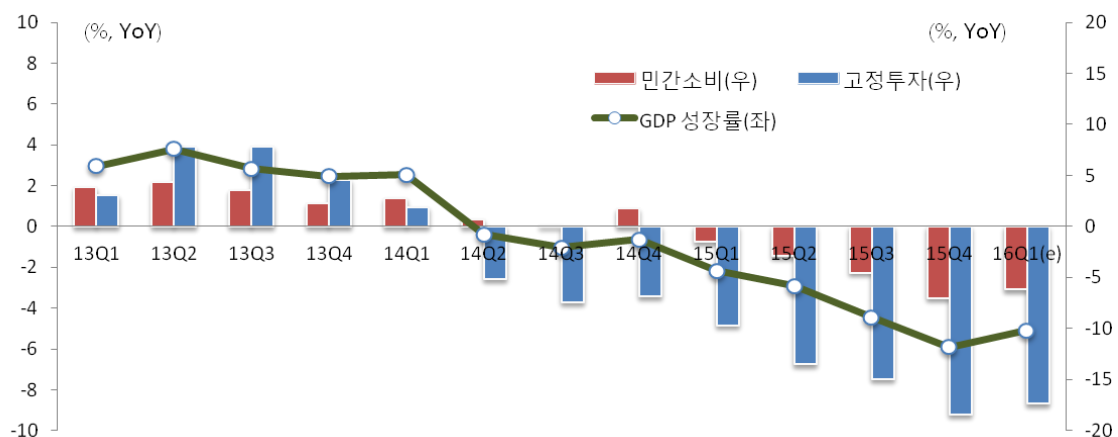
1. 브라질 경제 펀더멘탈 점검

□ 브라질 경제는 지난 3년간 GDP 성장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,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두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

○ '14년, '15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0.1%, △3.8%를 기록하고, 금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 부진 상황

- 전년도 민간 소비와 고정 투자도 각각 △4.0%, △14.1%를 기록, 금년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내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침체 장기화 우려
- 특히,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올해도 경제 성장률이 전년과 비슷한 △3.6%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브라질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예상

〈브라질 경제 성장률 추이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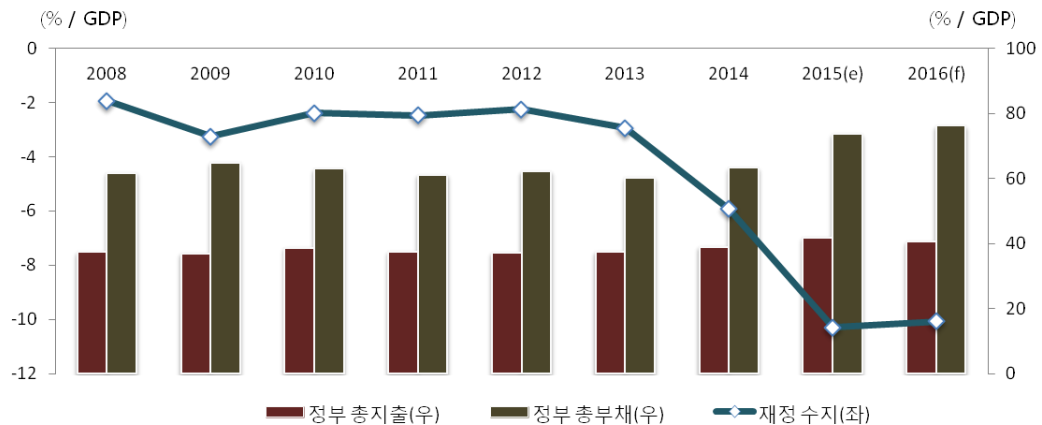
출처: BCB, IBGE, BNDES, FGV, IMF 외 (포스코경영연구원 정리)

□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반면, 정부 지출은 유지 또는 소폭 확대됨에 따라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도 증가세

○ 경기 침체 지속으로 정부 수입은 감소하였으나, 연금이나 의료 비용 등 정부 지출은 쉽게 줄이지 못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양상

- 2013년부터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2014년 GDP대비 △5.9% 수준을 넘어 2015년은 △10%(추정)를 돌파하는 등 지속 악화 우려
- 정부 세수는 감소한 반면, 극빈층 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많아 정부 지출이 오히려 확대되면서 작년 정부 부채도 GDP 대비 70%를 초과(추정)

〈브라질 정부 재정 추이〉



출처: BCB, BNDES, FGV 외 (포스코경영연구원 정리)

□ 경제 위기로 시작된 사회 불만이 호세프 탄핵을 정점으로 정치·사회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국가적 위기로 부각

○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외 요인 악화→ 브라질 내수 침체→ 사회 불만·정치 불신 심화→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악순환이 지속

〈브라질 위기 원인 분석〉



출처: 포스코경영연구원

○ 특히, 서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집권당(PT)의 인기가 급락하면서 연정에 참여했던 PMDB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여당 연합에서 탈퇴

- PMDB는 원래 중도 성향으로 과거 군사 정부에 우호적이어서, PT와는 적대적 관계였으나, 2000년대 이후 룰라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연합 전선 구축

- 호세프 1기 정부에서는 의회와 관계가 좋지 않은 대통령을 대신해 PMDB 소속 테메르 부통령이 대화 창구 역할을 해 왔으나, 대선 이후 가교 역할 포기
- 호세프와 정치적 연대감도 없는 PMDB로서는 지난 총선에서 상·하원 모두 1당으로 도약, 양원 의장을 배출하면서 연정에 따른 실익도 없는 상황

2. 호세프 탄핵 배경과 의미

□ 호세프 탄핵의 법적 근거는 정부의 회계 조작 혐의이며, 과거 연립 여당이었던 PMDB 주도의 총공세로 현재 대통령 직무는 정지 상태

○ PMDB와 야당은 호세프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국영 은행을 통해 20조원을 대출받아 실업보험, 저가주택 공급 등의 정책 추진에 사용한 혐의를 탄핵 이유로 제기

- 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재정 적자 축소 및 은폐를 위한 불법 행위로 간주, PMDB 소속 하원의장인 에두아르도 쿠냐(Eduardo Cunha) 주도로 탄핵안을 발의하여 현재 상원의 최종 투표만 남은 상태
- 호세프는 이러한 관행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15년간 있어 왔던 일이며, PMDB를 포함한 야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문제삼지 않던 일이라고 항변

○ 그러나 실제로는 Lava Jato* 수사로 정치인들의 사정 범위가 PMDB 등 연립 여당 전체로 확대된 것이 결정적 계기

- 야당이 Petrobras 비리 수사로 롤라와 호세프를 몰아세웠지만, 유죄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채, 쿠냐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나오고, PT가 이를 감싸주지 않아 정치적 복수를 꾀한다고 판단
- 테메르 측 인사로서 구속되거나 비리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10명을 넘어설 정도여서 테메르가 속한 PMDB의 위기감이 여당에서 이탈을 초래

※ 라바 자투(Lava Jato; 세차용 고압분사기) : 브라질 최대 및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가 사업상 이득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활용, 오랜 기간 정·관계에 뇌물과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건

- 동 사건은 일회성 뇌물 공여가 아닌 오랜 관행으로 진행되었고, 주요 범죄가 롤라 전 대통령 재임 중 발생, 호세프 대통령이 이 시기에 Petrobras 이사회 의장을 맡아 초대형 스캔들로 비화
- 또한, 롤라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Petrobras 사업 수주 관련 비정상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
- '16.4월까지 16개 기업과 관련자 232명을 수사, 179명을 기소하고, 9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음

□ 호세프 탄핵 사태는 지난 15년간 중남미를 지배한 Pink Tide*의 종말을 의미하며, 탄핵 성공 시, 다른 좌파 정권도 유사한 위기에 직면 예상

- 호세프 탄핵 사건은 '09년 온두라스 군부 쿠데타, '12년 파라과이 의회의 대통령 탄핵 및 현재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대통령 소환 투표 등과 궤(軌)를 같이 함
 - 온두라스 쿠데타의 경우, 미 정부의 중립적 묵인으로 당시 대다수인 중남미 좌파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기구(OAS)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됨
 -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 시에도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국가들은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남미의 우경화에 대해 강하게 맞섰으나 실패
 - 이미 OAS 주재 미국 대사 등은 호세프 탄핵은 합법적인 절차이며, 쿠데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, 브라질 정권 교체를 암묵적으로 지지

※ 핑크 타이드(Pink Tide): 과거 중남미에서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정부 성향을 대표하는 표현. 급진적이 아닌 중도 좌파 성향이 강하며, 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해 집권하여 '분홍 물결'이라 일컫음. 과거 원자재 호황과 함께 10년 이상 큰 인기를 누렸으나, 최근 그 거품이 사라지면서 퇴조하는 추세

- 최근 아르헨티나 우파 정권 수립, 미 대통령의 쿠바 방문 등 미국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미국의 對 중남미 영향력은 다시 확대될 전망
 - 호세프 탄핵은 과거 중국의 자원 외교를 통한 전략적 지원 등으로 오바마 정부 들어 급격히 약해진 미국의 對 중남미 관계를 급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임
 - 남미에서 가장 반미 성향이 강했던 베네수엘라도 최근 경제난으로 미 국무부 차관이 마두로 대통령을 방문,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등 변화 분위기 감지
- ※ 서구 언론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, '중남미 국가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앞마당에서 미국의 뒷마당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'고 표현

3. 룰라와 호세프 리더십 비교 분석

□ 룰라 전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력과 타협을 통해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고, 효과적으로 연립 정당을 구성하여 대선 승리 및 장기 집권에 성공

- 룰라 집권 당시 PT는 소속 의원 15% 수준의 소수 정당이었음에도 연립 정부 요직에 야당 인사까지 중용하는 포용력을 발휘해 정치적 한계를 극복
 - 당시 PT는 상원 14명(총 63명), 하원 88명(총 387명)을 보유, 30여 개 정당이 난립한 브라질 의회에서 각 당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며 협상 시도

- 특히, 룰라는 정부 요직에 당시 강력한 야당인 PSDB 인사도 중용하는 포용력을 발휘, 특정 노선에 집착하지 않고 내각제 총리 같은 역할을 담당

□ 반면, 호세프는 소신과 원칙주의를 고수하였으나, 경제 부진으로 기득권과 서민층 불만이 겹치면서 여러 세력들이 연립 여당에서 이탈

○ 1기 정부에서는 룰라의 후광과 강한 PT당 입지로 국정 장악에 성공하면서, 연립 정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으나,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분열 조짐

- 2012년부터 경기 침체로 국민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, 2013년 발생한 공공 요금 인상 반대 시위가 재선을 전후한 시점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소요 사태로 확대되면서 호세프에 대한 지지도 급락

- 특히, 총선과 함께 치른 대선에서 PT의 부진과 비슷한 성향의 3위 후보에게도 압도적 우위를 못 보이면서 호세프의 입지가 약화되고, 연립 정부도 분열 조짐

※ 재선 직후 불거진 페트로브라스 비리 수사에서 호세프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, 전면 수사로 확대한 것이 의회 전체를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함

4. 향후 정계 개편과 정책 변화 전망

□ 현재는 새로 정부까지 구성한 테메르 측이 우세하나, 향후에도 변수가 많고, 국민들의 정권 교체 갈망과 최근 룰라의 재등장으로 예단 불가

○ 호세프 탄핵안이 이미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압도적인 지지로 심의를 통과하여 이번이 없는 한 최종 통과가 유력한 상황임

- 탄핵안에 대해 하원 513명 중 476명째 투표에서 정족수(342명)를 채웠으며, 상원 심의에서는 81명 중 55명이 찬성, 탄핵 정족수(2/3)를 이미 넘어선 상황

※ 브라질 대통령 탄핵의 경우, 부패와 같은 일반 범죄는 연방 대법원 최종 판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, 그 외는 상원의 최종 심의 및 가결로서 가능

○ 그러나 탄핵을 둘러싼 양측 모두 도덕적 결함이 많고, 상호 폭로와 비방전이 확대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드라마적인 결과를 배제할 수 없음

- 현재 테메르 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1% 수준이며, 임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최근 상승세이긴 하나 여전히 10%대로 낮은 수준임

- 최근 룰라를 중심으로 PT와 여권이 재편되고 있으며, 호세프 측은 탄핵안 부결 시, 국민 투표를 통해 조기 대선 실시를 공언하며 이탈 세력을 포섭 중

□ 향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3개로 압축 가능

○ 시나리오 1) 호세프 탄핵 통과 및 테메르 정부 출범으로 위기 상황 점진적 해소

- 탄핵 심의에 찬성한 의원이 55명임을 감안 시, 탄핵 통과(2/3인 54명 찬성 필요) 가능성이 높으며, 테메르는 2018년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
- 테메르 정부 출범 시, 친(親)시장 정책으로 지지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브라질 경제 여건 감안 시, 단기 회복이 어려워 극적인 반전 가능성은 낮음

○ 시나리오 2) 호세프 탄핵 통과 및 테메르 정부 출범 속 브라질 위기 지속

- 낮은 기대 속 테메르 정부 공식 출범하나, 신임 대통령 포함 새 정부 핵심 인사의 비리가 계속 드러날 경우, 전 국민적으로 퇴진 시위 격화 예상
 - 테메르 임시 정부 각료 26명 중 15명이 부패 혐의에 직면, 이 중 9명이 문제의 '라바 자투' 사건에 연루 (기획·반(反)부패부·관광 장관은 이미 사임)
- 현재 PT는 PMDB와 테메르 측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역공 모드로 전환, 상원에 대한 설득 외에도 직접 거리로 나와 對국민 호소 작전에 돌입
 - 특히, 과거 길거리 투쟁의 대명사격인 룰라가 직접 나설 예정이어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, 테메르 정권 또한 탄핵으로 붕괴 가능성

○ 시나리오 3) 호세프 탄핵 실패 및 대통령 직무 복귀 후, 조기 대선 실시

- 룰라와 PT의 협상력과 정치적 수완으로 일부 의원의 탄핵 철회 가능성
 - 기존 지지자 중 2명 이탈 시, 탄핵은 부결되어 호세프 대통령 직무 복귀
- 한편, 부결되더라도 호세프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은 낮으며, 자신의 공언대로 국민 투표를 통한 조기 대선 모드로 정계 개편 시도 가능성이 높음

□ 테메르 정부 공식 출범 시, 親시장주의 및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 부양 시도 예상

- 신(新)정부 주요 정책들로는 재정 균형, 복지 비용 축소, 인프라 투자(민영화 및 개발 인허가 확대), 무역 활성화 등이 예상되며,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단계적 시행 필요

〈테메르 임시 정부의 주요 정책 분석〉

- **투자자 신뢰 회복 등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 지출 감축**
 - BNDES(개발은행)로부터 U\$280억 자금 조기 회수
 - 향후 20년간 정부 예산 동결 추진
 - 2008년 경제 위기 대비, 석유 사업 수익금으로 신설한 국부펀드 폐지
- **연금, 교육, 보건 제도 등 사회적 비용 축소 위해 방만한 사회 정책 개혁**
 - 연금 제도의 축소 및 개혁, 교육 및 보건은 최소 비율 유지를 헌법에 명시
 - 과거 정부의 상징적인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'Bolsa Familia', 'MinHa Casa Minha Vida' 회계 감사 추진
- **내수 경기 부양 위해 인프라 투자 중심의 성장 방안 제시**
 - 향후 100개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목표
- **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역외 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외교 관계를 구축**
 - 브라질 경제 및 무역 촉진 위해 중국, 미국 등과 FTA 체결, Mercosur 활성화

출처: 국내·외 언론 종합 (포스코경영연구원 정리)

※ 현 정치 구도 감안, 테메르의 짧은 임기(2년) 동안 상기 법안의 통과 및 제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, 향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젠다로 활용 예상

5. 시사점

□ 탄핵안 최종 투표가 예정된 8월 말까지 정국 주도권을 두고 양측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 및 사회 혼란 지속 우려

○ 남미 최초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은 테메르 임시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권 밖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

- 반면, 이번 올림픽은 치안 문제 외에도 수질 오염, 지카 바이러스, 신종 플루 등 악재가 많아, 대형 사고 등 자칫 운영의 미숙함이 전 세계에 노출될 경우, 부메랑으로 작용 가능

□ 브라질은 리우 올림픽에 사상 최대 예산을 집행한 반면, 흥행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정권 교체 시에도 브라질 경제에 대한 낙관은 금물

○ 정부는 올림픽 준비 예산으로 391억 헤알을 반영, 지난 월드컵 예산(271억 헤알)을 넘었으나, 올림픽 기간 해외 관광객 방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

○ 또한, 대부분의 예산(U\$71억)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,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적으며, 올림픽 이후부터 경기 부양 효과 상실로 내수 침체 우려

- 인프라 공사가 대부분 끝남에 따라 올림픽 이후부터 건설 분야 대량 실직이 예상되나,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해 공공 근로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울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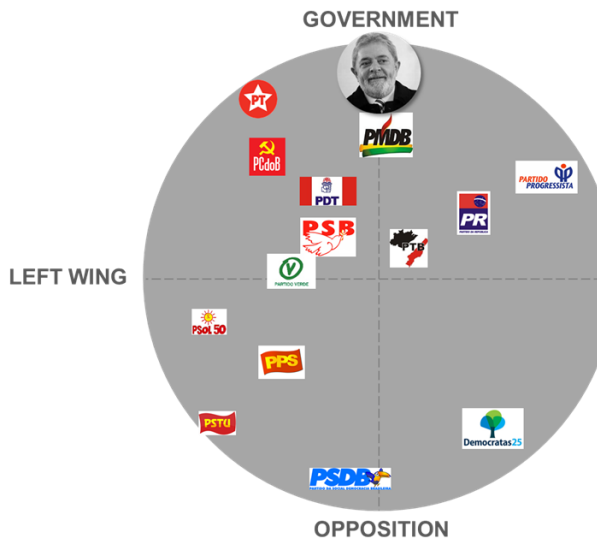
□ 브라질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, 신(新)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운영 전략 재점검 필요

- 테메르 임시 정부는 백인과 기득권 인사로만 구성, 일반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, 공식 출범 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
 - 룰라와 호세프는 브라질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,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중용하였으나, 테메르는 철저히 기득권 세력을 대변, 사회 불평등 심화 우려
 - 특히, 전통적으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, 지역 소득이 높은 RJ주, SP주 및 MG주를 중심으로 산업 정책 및 투자 유인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
- 향후 친(親)시장 정부 수립 시, 외투 기업에게 유리할 전망이나, 정부 측 주요 인사 성향 파악과 조기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대정부 활동 강화 필요
 - 신정부 출범 이후, 우리 기업들은 對정부 활동의 일환으로서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 고용과 자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별첨]

<룰라 정치 성향 및 권력 관계 분석>



[룰라 정부와 정당간 관계]

- (집권 당시)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, 연립 여당이 '중도좌파' 성향이 아님
- 다수의 우파를 포함, 이념 스펙트럼이 넓음
→ 이념적 대립이 사실상 무의미
- 집권당(PT) 이외 1위 여당인 PMDB가 룰라를 적극 지지
- 제 1 야당인 PSDB를 제외하면 정적이 없음
→ 80%대 국민적 지지 기반으로 작용

출처: Prospectiva

<룰라 임기 중 정당별 의원 분포 구조>

(‘11. 11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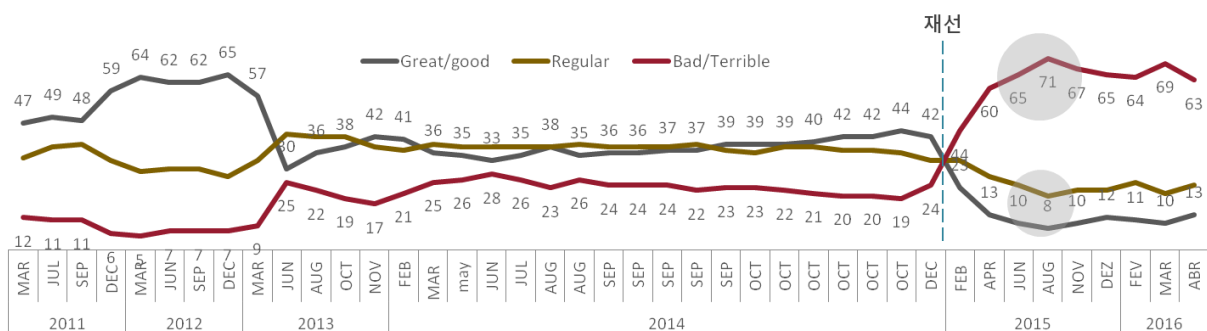
여당 연합	상원	하원
노동자당(PT) - 집권당	14	88
브라질민주운동당 (PMDB) - 제 1파트너당	18	79
공화당(PR)	8	41
진보당(PP)	4	41
브라질사회당(PSB)	4	34
민주노동당(PDT)	5	28
브라질노동당(PTB)	7	21
사회기독교당(PSC)	-	17
브라질공산당(PC do B)	2	15
브라질공화당(PRB)	1	8
국민운동당(PMN) 외 6	-	16
합계	63	387

야당 연합	상원	하원
브라질사회민주당(PSDB) - 제 1야당	13	53
민주당(DEM)	5	43
인민사회당(PPS)	-	12
합계	18	108

중립	상원	하원
녹색당(PV)	2	15
자유사회주의당(PSOL)	1	3
합계	3	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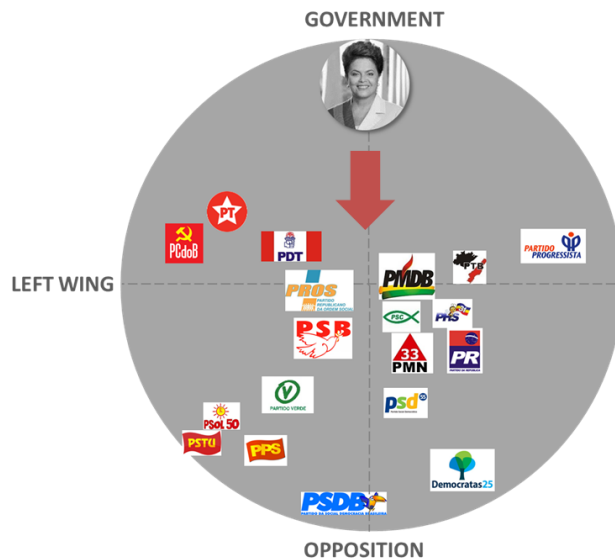
출처: 국내·외 언론 종합 (포스코경영연구원 정리)

<호세프 정부 지지율 추이>



출처: Prospectiva (Datafolha 재인용)

〈호세프 정치 성향 및 권력 관계 분석〉



[호세프 정부와 정당간 관계]

- (룰라와 비교) 이념적 성향에는 변화 없으나 정부와 의회간 관계가 멀어짐
- 충성심 없는 연합관계(Disloyal allied base)
- 연립 여당 내 제 1당인 PMDB측 불만으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주도
- 대통령의 정치적 스킬에 의존한 연합 정부의 한계 노출

출처: Prospectiva

〈호세프 임기 중 정당별 의원 분포 구조〉

여당 연합	상원	하원
노동자당(PT) - 집권당	13	58
브라질민주운동당 (PMDB) - 제 1파트너당	17	67
공화당(PR)	4	38
진보당(PP)	6	40
사회민주당(PSD)	3	32
민주노동당(PDT)	4	18
브라질노동당(PTB)	3	20
사회기독당(PSC)	1	14
브라질공산당(PC do B)	1	12
브라질공화당(PRB)	1	8
합계	53	307

(15. 12기준)

야당 연합	상원	하원
브라질사회민주당(PSDB)	11	51
- 제 1야당		
민주당(DEM)	4	23
인민사회당(PPS)	2	10
합계	17	84

중립	상원	하원
녹색당(PV)	1	7
브라질사회당(PSB)	7	33
기타	3	71
합계	11	111

출처: 국내·외 언론 종합 (포스코경영연구원 정리)

※ **멘살라용(Mensalão, Monthly Payment)** : 룰라 1기 정부 시절, 집권당(PT)이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매수한 뇌물수수, 돈세탁, 횡령 등이 얽힌 총체적 부패 스캔들

-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로서, 당시 정부 각료, 연방 상·하원 의원 700여명 중 378명이 수사를 받았으며, 최종 37명을 기소하여 연방대법원 판결로 24명이 실형 선고를 받음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오성주, “브라질 대선 전망과 룰라 복귀說의 의미”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3. 8

오성주, “브라질, 경제 구조 변화 시급하다”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3.10

오성주, “중남미, 잔치는 끝났다”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5. 4

Ricardo Mendes, “Brazil in focus: Policy, politics and institutions”, Prospectiva, 2016. 5

국내·외 브라질 관련 언론 기사

[홈페이지]

IMF (www.imf.org)

World Bank (www.worldbank.org)

Banco Central Do Brasil (www.bcb.gov.br)

BNDES (www.bndes.gov.br)

FGV (portal.fgv.br)

IBGE (www.ibge.gov.br)

Economic Commiss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(www.cepal.org)

IHS Connect (connect.ihs.com/home)

외교부 중남미 자원·인프라 협력센터 (energia.mofa.go.kr)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(www.kiep.or.kr)

국제금융센터 (www.kcif.or.kr)

한국·브라질 소사이어티 (www.kobras.or.kr)